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4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10. 28(금) 14:00 ~ 15:59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제34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차회의와 같이 예술가의집 노후 배관 보수 공사로 인해 지난 9월 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번 정기위원회 회의까지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11월 정기위원회는 이전과 같이 예술가의 집에서 대면, 비대면을 포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먼저 깊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회의인만큼 의결은 가·부 모두를 확인하여 의결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회선이 불안정해서 회의 내용이 들리지 않거나 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단톡방에 문자나 화면에서 손을 들어 표시하거나 말씀을 해 주시는 등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회를 하고 불안정한 회선을 복구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2년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의 건을 비롯하여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나주 본청이고 이곳에 각 본부의 본부장과 회의의 안건보고자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본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임감사님도 함께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로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관 중입니다. 그 외에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을 포함하여 안건보고와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 12명이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340차 전체회의의 경우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 2건이 수정의결, 1건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의결로 진행되었던 제341차 전체회의의 경우 2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전차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전차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회의 결과 보고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위원회에는 2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의안번호 제976호 2022년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의안번호 제977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건 등 2건의 의결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2년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술창작본부장 대행인 정준화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976호 2022년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논의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추진경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회의를 지난주 수요일인 10월 19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일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은 심의위원 후보단 위촉 여부 결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2차로 접수된 인원은 총 72명 중에 위원님들과 외부위원 2인의 논의를 거쳐서 총 65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문화일반의 경우 접수인원보다 선정인원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분야와 문화일반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로 시각예술, 2순위로 문화일반으로 신청했는데 시각예술에서는 선정이 안 되고 문화일반에서만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것

처럼 문화일반의 접수인원이 9명인데 선정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회의에서 전문분야를 다른 분야로 변경하는 것에 신청하신 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선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2인이 그 경우였습니다. 한 분은 연락 결과 전문분야 변경을 수용하셔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지금 현재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나머지 한 분도 여쭤보고 동의를 하시면 조건부선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2명 중에서 총 65명인데 각 건별로 보면 총 90건인데 세부 장르는 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65명에 대한 선정 의결안건이었고 보고안건은 2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별세를 하신 분이라 위원회에서 자동 해촉 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후보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회의자료에 2인이 계셨고 추가로 극장장님까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를 파악해 봤는데요. 말씀드린 3인 외에는 후보단에 포함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인 모두 직원으로 재직하는 중에는 심의에 참여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은 재직하는 기간에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정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 심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방지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지원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이 외부위원님들과 함께 심의위원 선정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위원회에 올라온 사안이니만큼 이해도가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총괄부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의 건은 위임받은 사안까지 포함하여 지원총괄부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이나 말씀으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제977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지침은 연초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요. 내부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내부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산운용 위험관리 조직·직제가 부적정하고 운용실무협의회나 상품선정협의회 운영이나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업무분장을 경영지원부로 현행화하고 운용실무협의회나 상품선정협의회는 운영이 형식화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금자산운용 조직 중 운용실무협의회 및 상품선정협의회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낮아 대내외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하고 투자 가능 자산이나 절차를 명시하여 보완하는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업무 직제 개편과 리스크관리지침 제정에 따라서 경영지원부의 리스크관리 업무분장을 현행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7쪽에서 2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자산운용지침의 4장 '자산운용 체계'에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상품선정협의회 등을 조직체계에서 제외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모호했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자산운용부서를 설명하는 글이 불명확해서 그것을 기획조정부와 밑의 5번에 재무관리 담당 부서는 경영지원부로 한다는 문구로 정리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1호부터 7호까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용실무협의회와 상품선정협의회는 형식화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1쪽과 22쪽을 보시면 자산운용부서에서 상품 운용 시 한도, 투자가 가능한 자산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산운용부서는 16조에 규정한 자산배분안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즉 현금성 자산,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채권·주식, 금융대체 투자자산으로 해서 지수형 ELS하고 종목형 ELS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목형 ELS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고위험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할 수 있다고 자산운용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에서도 함께 검토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 절차와 관리의 중요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러한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감사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임감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기금운용 강화 운영지침 개정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관심을 깊게 두고 있지 못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산운용위원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임명하나요? 그러니까 만약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자산운용위원회가 아니라 예술위원회

의 위원장과 이사진의 책임일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런데 자산운용위원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원회 위원들은 한번도 뵌 적이 없고 어떻게 위촉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던 적이 없어서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별도로 자산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높은 분들로 저희가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중·단기 자금의 배분이랄지 허용위험한도 등을 검토해서 정해줍니다. 정해준 내용을 기준으로 운용하게 되고요. 상품별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정리해서 매 분기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타 기금과 운용수익률 비교나 거시금융경제 환경에서 주의를 더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위원회 위원님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겁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또 다른 축으로 해서 실제로 운용하는 상품이나 과정에서 허용위험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주십니다. 상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환류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위원회의 위원을 어떤 절차로 위촉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조정부에서 전적으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하시는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맞습니다.

정정숙 위원 : 기획조정부에서 전적으로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그렇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산운용위원회는 김경록 미래에세투자대표, 한신회계법인 김재조 공인회계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위경록 교수, 한국금융산업연구원장 조진환 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종관 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직무대행이라서 들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필요하시면 명단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제가 포함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포함되어 각기 별개로 움직여서 자산운용과 관련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차해서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기도 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이 임명되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모두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고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이죠. 저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미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중에서 대학 총장이 되신 경우가 있어서 사의를 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업계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신데요. 특히 자산운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멤버십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운용위원회에 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없으시면 이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안에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은 말씀이나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안건번호 제977호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상 2건의 의결안건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제는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오늘 보고안건은 크게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뉴서울CC 및 한국문화진흥(주) 매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의 건 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로 위원회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공연예술연습공간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 심의를 해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제3회를 맞이하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운영 계획(안) 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차, 제7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사무처장의 보고를 받으신 대로 5개의 보고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보고가 모두 끝난 다음에 접수 절차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뉴서울CC 및 한국문화진흥(주) 매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첫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5페이지입니다. 뉴서울CC 및 한국진흥(주) 매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뉴서울CC 및 한국진흥(주)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서울골프장은 1984년에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해서 조성했고 87년 3월에 모든 토지와 시설물을 옛날 문예진흥원에 전체를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87년 10월에 골프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도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문화진흥(주)에 모든 주식 지분을 역시 문예진흥원에 기부해서 저희가 영업권까지 인수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위탁 약정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삼동 일대고요. 골프장의 운영방식은 전체 회원 2,000명으로 구성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정회원이 1,992명이고 특별회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36홀이고 18홀 코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길이는 13km 정도가 됩니다. 시설은 부지 84만평에 클럽하우스 등 21개 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한국문화진흥(주)에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를 일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주)는 저희가 단일 주주고요. 기구는 6팀 1실이고 정원은 1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영업실적은 연간 내장객이 175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매출액은 31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금조성액을 매년 50억 원씩 저희한테 이관해 오고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작년부터 기금조성액 50억 중에 절반인 25억 원 이상을..... 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원으로 8명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의 이용 혜택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돼서 재원을 25억 원씩 3년 간 적립했다가 특별회원권을 소각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 골프장과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한국문화진흥(주)에 대한 매각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크게 3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라는 방침이 발표되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98년에 기획예산처에서 공공부문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 방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자체 매각을 추진해서 총 4차례 입찰을 시도했으나 최종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정책이 2008년도에 발표되고 뉴서울CC를 매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또다시 골프장과 자회사 매각계획을 의결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차례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11차례 입찰에도 불구하고 최종 유찰이 되었고요. 이후로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나 처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을 위탁시키라는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저희도 결국 골프장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2012년 10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매각 주관사를 신한투자금융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때 매각을 위해서 신한투자금융에서 자산재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평가된 자산 가치액이 이 당시에 2,800억 원에서 약 3,0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사실상 매각 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1년 단위로 약정기간만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에 공공기관혁신방안이 금년도 7월 29일 기재부에서 발표되고 업무 네트워크 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 가이드 양식에 따른 혁신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이 7월 29일입니다. 회신 방법은 주무 부처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8월 말까지 문체부에 예술위원회 혁신계획을 제출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자산처분 방안에 대해서 뉴서울CC는 경영개선과 효율화를 통해서 기금조성 실적을 증대하

겠다는 개선안만 작성했고 자산 매각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기재부에 문체부를 통해서 통보가 온 공공기관혁신TF 검토 결과에는 뉴서울CC를 매각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0월 12일에 기재부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예술위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문체부를 통해서 실무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의견을 받아서 문체부에서는 예술위원회의 8기 위원과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매각 결정을 다시 하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정평가 및 입찰 결과 매각을 통한 연간 이자수익이 현재 연간 기금으로 출연되는 금액 50억에서 60억을 상회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부가 조건까지 명시해서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기재부에서 다시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고요. 당일 바로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매각 일정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우리가 마지막 2차에 공공기관혁신방안을 추진할 때 매각과 입찰 과정에 걸린 총 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입찰 과정을 진행했지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삼아서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해서 매각시기를 2025년 하반기로 체크했고 결산서 상에 뉴서울골프장에 대한 자산 장부가액을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 골프장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매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골프장 전체 자산과 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진흥(주)에 일체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해서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28페이지의 매각 추진일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28일 오늘 회의에서 전체적인 개요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고요. 12월 예술위원회 8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 골프장 매각 재개시 계획을 8기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2월에서 3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기재부 쪽과 협의하고 변경해서 확보하고 이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재개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서 이후 매각주관사가 결정되고 감정평가를 마치는 시기가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매각액이 결정되면 10월부터 입찰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최종 유찰이든 낙찰이든 최종 매각이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각 종료시기는 2025년 12월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뉴서울CC 및 한국문화진흥(주) 매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다. 짧게는 새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것이고요. 길게는 1998년 이후 25년 가까이 되는 골프장 매각의 역사를 보고 받으신 건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질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자료에 포함된 뉴서울CC 매각 추진계획(안)이 문체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안건인가요?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골프장을 매각하라고 되어 있고 자세한 일정과 예산가액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홍태림 위원 :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고 제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매각할지 말지에 대한 개시 결정은 이미 지난 2차에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각계획을 의결했고요. 문체부의 승인도 받은 상태라서 이것을 다시 의결하는 의미는.

홍태림 위원 : 자산매각이 정부의 기조라고 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공성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당장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이라든지 미래가치가 더 크다면 뉴서울CC를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뉴서울CC 최소 매각기준 금액이 1,700억원 인데요. 근래에 특별회원권 소각 문제가 있었던 것을 빼면 매년 50억 정도는 문예진흥기금에 보탬이 된 것이 뉴서울CC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제시한 매각기준이 뉴서울CC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뉴서울CC는 얼마에 매각되더라도 매각하면 예술 현장이나 예술위에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손해를 끼치면 이것이야말로 위원회에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공공성이나 합리성 차원에서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의견이 없음.”이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부의 요구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음.”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뒤에 조금 더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가이드라인 양식을 배포하면서 8월 말까지 주무 부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것은 “매각 자산 대상은 없다.”, “자회사는 경영개선과 효율화를 통해서 기금조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명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공공기관혁신TF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내린 것은 “뉴서울CC는 매각해야 한다.”라고 결정해서 다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문예진흥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산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제언이기 때문에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고 이후에 의견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매각이라는 유불리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공공성과 합리성 문제에서 매각이 갖는 유리한 지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한두 개 확인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추가로 정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홍태림 위원 : 어떤 것을 더 정리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의견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홍태림 위원 : 아까 2022년 10월에 기재부 공공기관혁신TF에서 저희가 매각 의견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관 위원장 : 예. 거기에 대한 강병주 경영지원부장의 설명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오해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이것은 어차피 새 정부에서.....

박종관 위원장 :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는 좀 궁금한 게 연간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 운영에 사용된 것인데요. 그러면 매각을 했을 경우 연간 수익을 얻었던 부분은 어디에서 대체가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박종관 위원장 : 지금도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메세지로 남기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했을 때 대체 재원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경주 위원 : 예, 저는 그것이 같이 정부와 논의되어야 예술위원회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정리하자면, 매각에 따라 골프장이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했던 현재 수입원에 대한 명확한 대체 재원과 관련된 대안이 있을 때 매각과 관련해서 시도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경영지원부장님이 발표해 주실 때 이미 설명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각해서 그것의 이자가 50억원 이상이 될 때 매각한다는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게 그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다른 설명이 필요하면 강 부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각대금을 운용해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골프장에서 벌어들이는 50억원에서 60억원이 될 때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매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매각자금을 운용해서 50억원 이하로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각하는 것은 나중에 헐값 매각이나 종속 매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게 매각되더라도 저희 실무진이나 경영진에서 우려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큰 매각

대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것을 운영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제일 우선시 되는 사업이나 운영비 쪽에 먼저 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매각자금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함으로 결국 매각을 아무리 큰 금액을 받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은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큰 걱정거리이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자면 매각이 갖는 유불리의 문제, 특히 공공성, 합리성에 관해서 분명히 먼저 고려되고 매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문예진흥기금 재원 마련의 형편에서 매년 50억원 이상 기여해 오던 수입원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나 대체 재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2개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으로 적시하여 뉴서울CC 및 한국문화진흥(주) 매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접수하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남요원 감사 : 상임감사 남요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3인의 위원님들이 8기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정숙 위원님, 장인주 위원님, 정종열 위원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영지원부나 기획조정부 등 사무처와 긴밀하게 논의 후 들어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강병주 경영지원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7기에서는 매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매각계획만 세워서 8기 위원 구조에서 최종 매각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홍태림 위원도 말씀하셨고 박경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매년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들어왔던 재원의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 구조가 뉴서울CC입니다. 나머지는 기재부나 문체부로부터 전입되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입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회계 편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사무처 노력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인데요. 50억원에서 60억원은 매년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전입되어 오는 기금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3인의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우리 실무 부서장과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실무 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졸속 매각' 또는 '부실 매각'이라고 나중에 판단되면 위원님들은 배임의 여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실무를 책임졌던 사무 행정이 져야 할 책임은 2차적 배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졸속 매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이런 뉴서울CC가 매각되려고 하면 이자소득이 50억원에서 60억원이 나오는 규모의 매각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매각대금이 우리한테 전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편입되어 세수로 들어가서 다른 데에서 다시 나눠 쓰고 쪼개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의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8기 위원회에서는 한국문화진흥(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서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체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중문골프장도 매각 대상이 되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6개의 대중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대중골프장을 지자체로 이관

하는 것은 아마 거의 확정되어진 것 같고요. 우리와 관광공사는 대중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3인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과 계획을 유념을 해 주셔서 8기 위원회 때는 주도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용을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결국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재부 TF에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가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반대하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 반대가 의미 있게 전달되고 우리의 의견대로 확정이 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요원 감사 : 반대를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고 문체부와 기재부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는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안인 것이냐?" 아까 기준점은 제시가 되었거든요. 이자소득이 50억원에서 60억원을 달성하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시켜 주시는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기존에 요약한 것은 다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어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한해 50억원 전후의 골프장 수입금은 전액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귀중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만 정리하고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쯤 되었으니 10분간 정회하고 쉬셨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일반회계로 진행된 2022년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사업 심의 결과보고를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본 사업에 대한 보고안건은 2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 사업은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차 보조사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수

행하는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사업이고요. 진행되었던 지역 주관처 공모심의는 전국에 있는 20개 공연연습공간에 운영률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운영률을 높이고자 필요한 지역 주관처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20개 기관 중에서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로 연습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위탁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요. 총 사업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단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적격자 지정 방식을 통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와 문화일반 분야 위원의 4배수 이상을 추천해서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0쪽 중간에 심의위원 명단이 있고요. 심의계획 수립 단계에는 5인의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심의 직전 날 모 위원께서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셔서 4인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신청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개 기관에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진행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지역문화재단들이 바쁜 탓으로 연장해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총 4개 사업이 지원신청을 하였고요. 그 가운데 1개 사업은 본 사업과 맞지 않는 목적을 갖는 사업이고 단체 자체도 그냥 민간단체가 신청하였기 때문에 행정 결격 처리를 하여 3건에 대해서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원결정 현황은 총 3건인 담양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으로 3건 모두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금액은 전주문화재단만 1,900만 원으로 지원신청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머지 2개 재단은 2,000만 원으로 해서 총 5,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보고안건이 접수되면 저희가 해당 지역문화재단 운영 주관처에 통지하고 발표해서 본 사업들이 잘 수행되어 운영률이 미흡한 재단들이 대관이나 민간예술단체 그다음에 생활예술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해당 연습공간이 잘 알려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2022년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심의 결과보고를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보고인데 접수를 받을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32쪽의 심의총평을 보면 “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서 공간 가동률 제고와 소재 지역을 연계한 장기적 공간 운영 활성화라는 취지를 균형감 있게 충족하며, 다양한 성장과정의 디딤돌로서 해당 공모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 주최 기관과 공모 신청 기관 양자 모두의 변화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응원한다.”라는 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의총평에 작성되어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다음 보고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운영 계획(안)입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35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기 위원회 때 시작한 아르코 대토론회가 벌써 3회째입니다. 추진 배경에 나와 있듯이 문화예술의 이슈 공론화나 소위원회 활동 부분에 대한 외부 공유 확산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이번에는 가칭 제목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전망”이라고 했고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하루에 2개 세션씩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예술가의집 다목적홀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줌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사고도 났기 때문에 대면으로 모이고요. 관객들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운영방식이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발제를 하고 각각 발제에 맞는 토론 방식을 규정하는 게 있고요. 발제 1인 이외에 자유토론을 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과 오픈 토크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 3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는데요. 8개 세션 안에 대해서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 세션에는 1회나 2회 때는 없었던 것인데요. 새정부 문화예술 정책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려고 하고 마지막 8세션에는 지역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에서 7기 위원님들이 계시면서 창작활동의 지원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다년간 지원 등 지원방법이나 대상발굴이나 대상의 세분화로 해서 예비 청년예술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청년 신진예술가 등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2개 정도의 발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예술의 가치 확산부분으로 창작자 관련된 이슈 이외에 예술의 가치 확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한 내용이 있어서 세션으로 넣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기후변화, 미래사회대응으로서의 문화예술 접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술가들께서 자체적으로 접목이 가능한 부분을 규약으로 만드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외부 확산 공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세션은 기초예술, 창작활동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 모색인데요. 이것은 보통 1회나 2회 대토론회 때는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라고 해서 세션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션 1개로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작활동의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원예술을 포함해서 기존 창작의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세션은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예술위원회 사업 중심으로 사업의 진단과 성과 그리고 향후 숙제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으로서 융합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안들과 제도 평가, 보완 과제 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세션으로는 최근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령이 실행되고 구체화 되는 관점에서 인권이나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세션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논의방식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넘어서, 지금 특히 최근에는 지방 이양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이 부분을 지역에서 받아들였을 때 쟁점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션별로 7~8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사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고 예산액은 총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저희가 일반수용비처럼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대토론회를 위해서 남겨놓았던 금액이고요. 이 금액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세션을 통합하는 작업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세션 제안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예술 생태계 구성원 다양성에 따른 이주민 예술가의 문화적 권리보장 방안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토론회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고 세션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에서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세션이 8개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 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요. 특히 새정부 문화예술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세션이 추가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션 하나하나가 복합적인 성격의 주제성을 가지고 있고 다소 광범위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제안서를 받고 세션 1개를 이 안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했는데요. 실무자와 이야기해도 세션 추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한 세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2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세션을 이 세션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세션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모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이 세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곱 번째 세션에 예술인 권리보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권리보장이라는 세션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꿔서 세션 제목을 “예술인 다양성 가치와 인권보장” 등으로 개명하고 발제 부분에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인권으로서 이주민예술가의 정책 범위에 대한 확장, 관심 등을 주제로 넣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세션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정도로 제안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토론회 세션 제안서의 내용까지 모두 함께 보고 받았습니다. 혹시 박경주 위원님께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박경주 위원 : 제가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박경주 위원 : 문자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동안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회나 2회를 할 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적 구조를 강화했었는데요. 올

해는 소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저희가 모시려고 해도 교통비 자체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기존에 했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추가해야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소 압축적으로 줄여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시면 세션을 구성하면서 발제나 토론자를 섭외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세션에 참여가 가능하시면 연락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진희 위원님, 의견이 있으세요?

이진희 위원 : 아니요. 의견은 아니고 이것을 기획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약간 못 따라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을 정책혁신부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신 거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부서 내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그래서 어쨌든 소위 활동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활동했던 인력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션별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나름 최대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의견은 어떤 의견이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유가 부족했다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는 “7번 세션에 넣는다면 발제자에 제가 추천하는 발제자와 토론자 각 1인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세션에 2개 정도의 발제가 있다면 하나의 발제를 박경주 위원님께서 넣어 주시고 토론자 중에 1인을 박경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분으로 반영하면 7번 세션에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5번의 기초예술, 창작활동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 모색 세션이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에서 기존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했을 때.

박종관 위원장 : 말씀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씩 끊어서 논의해야 하는데요. 지금 5번과 6번 세션을 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위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5번과 6번 세션을 합칠 수가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장이 여기에 답변을 먼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5번과 6번 세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겠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5번과 6번 세션의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도 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기존 1차, 2차 대토론회 때 2개 세션으로 나눠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발제로 넣고 새로운 창작활동의 시도와 관객 접점의 다변화 부분은, 관객 접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내용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시도는 다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창작활동의 시도가 6번 세션의 예술과 기술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모두 다루기에는 세션이 너무 무겁다는 판단이 있어서 분리했습니다. 특히 6번 같은 경우 내년도 예술위원회의 예산도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과 부분이나 앞으로 사업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따로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세션을 5번과 6번을 나눈다는 것이 이것을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의 내용 자체가 많을 것 같아 그 기준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5번의 기초예술 부분은 정말 독립적인 세션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6번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트렌드 속에서 5번과 6번을 통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개로 각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번의 세션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들어가는 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안은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정책혁신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3개년 동안 7기 위원들과 사무처 그리고 현장이 같이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7기가 올해까지 대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하고 이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7기 활동이 종료되면서 3개년에 걸쳐서 진행했던 각 소위 활동이나 대토론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무리하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세션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뭔가 3개년에 걸친 대토론회의 방향이나 시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총화하는..... 7기 위원들 중에서 참여도 하는 자리는 마련될 필요가 없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대토론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이진희 위원 : 예, 대토론회를 통해서 7기 위원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7기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올해까지 한다면 3개년 동안 대토론회 내용을 현장과 같이 만들고 추진한 것이 되는데요. 3개년에 걸친 대토론회의 의미라든가 어떤 성과나 이후 현장과 어떤 활동의 궤적을 남겼는지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첫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션을 아우르는 종합토론 같은 게 2020년 대토론회 때는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좀 결이 다른 문제 제기인데요. 먼저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제안서와 관련해서도 반영할 수 있는 틈이 있으면 반영하고요. 우리 위원회의 성과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니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담아보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션 5와 6의 영역이 달라 서로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세션 7에 “예술인 권리보장과 예술 생태계 공정환경” 이 문제의 큰 틀에 박경주 위원님의 제안 내용이 포함되면서 내용이 간섭 없이 확장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장님께 물어보는데요. 우선 예술인 권리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 등이 견지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생태계 공정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 예술가의 국내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에서 정책적 연관은 있겠다는 생각이라서 담을 수 있는 틈이 있다면 담아서 가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요. 우선 제 질의에 정책혁신부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지금 세션7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 넣게 된다면, 저는 크게 보면 이주민 예술가에 대한 정책 수혜대상 범위의 포함 문제는 예술인 인권문제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션 제목에서 마치 저희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관련된 이슈 쟁점 과제라고 하는 부분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평가에서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터치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요. 혹시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의 다양성 가치와 인권보장 등으로 해서 세션 제목을 바꿔서 같이 넣는 것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술인 권리보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목 상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제목을 달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는 실무 부서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용이 담보된다면 이 얘기를 담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는 일단 정창호 부장님이 주신 대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죠.

정정숙 위원 : 지금 박경주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은 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지는 것 같고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기 위원회의 종합적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잠시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술인 권리보장과 예술 생태계 공정환경과 관련해서 예술인 권리보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주민 예술가와 관련된, 문화적 권리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여 새로운 제목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논의 내용인데요. 혹시 이 의견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런데 예술인 권리보장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그 부분은 권리보장으로 가더라도 1번 세션에 저희가 이주민 쪽 관련된 인권보장 측면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권리보장이라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담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담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의결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접수하는 과정이니까요. 의견을 주고 다시 재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논의한 내용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경주 위원 : 예, 정창호 부장님께서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이해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이진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역사적인 7기 위원회의 임기가 매듭되는 것은 12월 정도로 예상한다면 12월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데요. 12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회 위원 토론회 형식을 통해서 매듭짓는 방식은 남아 있거든요.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이진희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시겠지만, 이진희 위원님은 대토론회 자체가 7기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3회 대토론회에서 뭔가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토론회 내에서는 담당 부장이 여러 차례 설명한 것과 같이 내용을 빼고 더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일단 이진희 위원님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저는 3기 총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션들 주제가 진행되고 나서 종합토론 등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책임성 있게 예술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도 종합토론에서 필요할 수 있고 위원들도 어떤 역할을 하며 이후에 책임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붙어야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완결성 있게 다른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그냥 세션별로 중요한 주제들이 펼쳐져 있기만 하고 정리되는 자리가 없어서 아쉬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3개년 동안 진행된 주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폭력 이슈도 있고요. 제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혁신 소위원회나 각 소위에서 집중해서 진행되었던 세션의 의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토론문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총화하는 자리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무리고 시간 배치가 어렵다면 1시간 정도라도 올해 진행된 세션에 대해서 위원이나 사무처에서 나와서 총화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1시간은 가능한가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폐회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일정 부분 집어넣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진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3개년에 걸친 7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자리를 마지막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2020년도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해에 세션 별로 정리하는 취지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기존 소위원회가 각각 활동했던 정리하는 차원에서 외부 확산 공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소위원회별로 활동보고서가 나온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공론화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 소위원회별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기 위원회 전체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대토론회 마지막 세션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르코 대토론회 자체가 예술정책의 이슈를 다루는 거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사실 이 부분은 대토론회 말고 7기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11월에 하

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진희 위원 : 예, 정 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은 철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별도로 마련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전고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전고필 위원 :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민간후원 활성화 같은 경우는 밀고 나가기가..... 우리 자체가 이미 예술의 가치 확산을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끌고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간후원 활성화 방안은 각자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에서 이 또한 세션3을 거둔다면 전체적으로 소위의 활동이라든지 그간 7기가 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세션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으니까 저도 하려고 했던 말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기획안을 다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12월 초에 대토론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차, 7차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역시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요약해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위원장의 보고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6차, 제7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8페이지부터입니다.
6차 회의는 자문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문회의를 열었던 취지는 저희가 사회적 기억 사업으로 포럼을 하기로 했던 부분, 작년에 장관님과의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1월에 사회적 기억 활동 포럼을 해야한다는 목표하에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억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세월호나 광주나 여러 가지 기억 사업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6차 자문회의 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차 회의 때는 사회적 기억 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를 포함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출판산업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같이 하는 행사로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 과정을 공유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기억 포럼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당시 시간적 기준으로 했을 때 논의 내용이고요. 현재 버전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랙리스트 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예술위원회가 바라보는 사회적 기억 포럼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예정 일자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우선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블랙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

었고요. 11월 30일 이후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안건에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블랙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중순에 관련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이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내용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소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위원회에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정숙 위원 : 이미 우리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정 부장님이 잘 발표해 주셔서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보탤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6차, 7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5개의 위원회 보고안건을 일괄하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2022년 11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일정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요원 감사 : 블랙 소위에서 2015년도 기관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나누시고 위원장님께서 보정을 위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8월 중반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정을 위한 사실확인 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2달 내에 해서 이번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실에 5가지 정도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업무 분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는 상의 말씀을 드려서 11월 전체위원회 때는 보고를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조사 기간을 더 늘리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구했고요. 이런 상황을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숙 위원 :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청을 저희가 의뢰했을 때 장기적으로 60일이 걸린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30일이 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결과를 기다리는 쪽에서는 우리 예술위가 다른 여러 가

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60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나머지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까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너무 기다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예술위가 직무를 적어도 유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제안 감사합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대회의실에 실무자들이 전부 모여서 공모를 어떻게 진행하고 한해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은 공모신청서를 작성하느라 매우 분주한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장이 바쁠 때 역시 우리 지원 기구도 함께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표하여 10월 초에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거움은 엄중한 것이라서 올해 국정감사도 쉽게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드러난 쟁점들도 많아서 사무처에서는 추가로 할 일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예산이 결정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의 직함을 유지하는 순간은 계속해서 의무가 쌓이는 시간이니만큼 내년도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고 또 다시 전염병이 창궐할 걱정을 하고 있는 때에 위원님들과 사무처 구성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4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회의종료)